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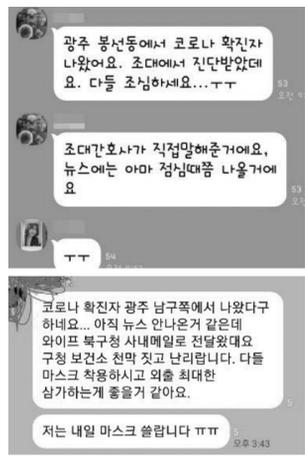
우한 폐렴 괴담에 지역민 불안 확산

“폐렴 걸렸다” 거짓 신고...카톡·맘카페 등 “확진자 발생” 유언비어 병원 측 전화 빗발...실시간 검색어 ‘광주 우한 폐렴’ 상위권 올라 “마늘 8~9쪽 끊어 먹으면 완치된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나돌아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과 관련한 허위신고에 이어 각종 유언비어가 휴대전화 문자와 카톡,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광주·전남 시·도민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은 29일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고 우한 폐렴에 걸렸다는 거짓 신고를 한 A(25)씨를 공무방해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 25분께 119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중국에 다녀왔는데 우한 폐렴에 걸린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119상황실은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도록 안내했지만 의심 환자 추적 관찰 과정에서 A씨 내원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진료 여부를 물었고 ‘대학병원으로 갔다’는 답변을 들었다. 보건당국 확인결과 A씨는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지역민은 문자와 카톡, 맘 카페 등을 통해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실제 지난 28일 서모(27)씨는 지인으로부터 “광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는 “남구에 확진자가 나왔다. 구청 사내 메일로 전달됐다. 보건소는 천막을 짓고 난리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실 확인결과, 광주에 우한 폐렴 확진자는 없었다.

같은 날 광주지역 엄마들이 활동하는 맘카페 카톡 단톡방에도 유언비어가 유포됐다. 한 회원이 단톡방에 “봉선동에서 코로나에 오르기도 했다. 전남도 약성루머로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순천시 성가톨릭병원에 ‘우한 폐렴’ 확진환자가 있다는 허위 사실이 퍼지면서 지역민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이날 성가톨릭병원에 ‘우한 폐렴’ 의심환자가 입원했다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한 사실이 잘못 알려진 것이다. 일부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카카오톡 등을 통해 “마늘 8~9쪽을 끊어 먹으면 우한 폐렴을 완치할 수 있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우한 폐렴’ 괴담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지역 맘카페 등에 나돌고 있는 우한 폐렴 유언비어.



중국어 안내판 부착 29일 광주 북구보건소 앞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선별진료소에 중국어로 된 안내판이 부착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행사 취소·연기 잇따라

공직자 중국 탐방 취소 검토 전남대 중국인 유학생 절반 입국 못해 졸업시험 못 치러 호남대 마스크 1만개 기증도

우한폐렴이 확산하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29일 광주·전남지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신안군이 지난달 13일 개막해 31일까지 진행하려던 행사인 ‘겨울꽃(애기동백축제)축제’를 지난 27일 중단한 것을 시작으로, 대다수 지자체들이 오는 2월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광주 남구는 이날 회의를 열어 2월 7~9일 개최할 계획이었던 고싸움놀이 행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광산구도 다음 달 8일 전후로 개최하려던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취소할 예정이다. 대학도 졸업식과 입학식, 교무 행사를 축소 또는 취소, 연기하고 있다. 광주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이 다중이 모이는 신입생 관련 행사나 입학·졸업식 등을 취소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학들은 또 중국 방문에서 돌아온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대상자 전원에게 자가 격리를 권유하고 있다. 전남대는 대학원 졸업 종합시험에서 중

국 유학생 응시생 12명 중 절반인 6명이 입국하지 못해 시험을 보지 못함에 따라 추가 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다음 달 중국에 파견 예정인 재학생 30명과 중국에서 들어올 초청 학생 78명의 초청 및 파견 연기도 검토 중이다. 조선대는 유학생이 머무는 국제관과 기숙사를 중심으로 손소독제를 배치하고, 학내에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 중이다. 또 대학 보건진료소에서 외국인 유학생(중국 유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하는 등 수시로 관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남대는 우한 폐렴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을 돕기 위해 KF94 방역마스크 1만개를 호남대 공자아카데미에 전달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신인-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우한 폐렴 감염 우려 지적에 경찰, 음주운전 단속 방식 변경

경찰의 음주단속 방식이 ‘우한 폐렴’ 감염 우려가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2020년 1월 29일자 6면)과 관련해 광주·전남경찰이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과 ‘음주감지기 사용’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2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도로를 전면 차단하는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을 일시 중단하고 감염우려가 있는 음주감지기 사용도 자제한다. 또 음주 의심 차량을 선별한 뒤 1회용 필터를 사용하는 음주측정기를 사용하거나 채혈을 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훙친 명품 지갑 팔려다 주인에게 ‘딱 걸렸네’

중고거래 사이트 판매 20대 검거

“어머나가 쓰시던 명품 지갑 팔았다.” 20대 남성 A씨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여성용 명품 지갑(패라카모)을 발견했다. A씨는 곧장 판매자에게 구매의사를 표했다. 이후 거래는 일사천리로 이뤄졌고, A씨는 판매자와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직거래를 약속한 지난 28일 오후 A씨와 판매자가 만나는 순간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이 판매자 B(29)씨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가 판매하려던 지갑은 주차된 차량에서 훔친 것이었는데, 지갑의 주인은 A씨 여자친구의 어머니인 C(48)씨였다. A씨가 B씨를 만난 사연은 지난 2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절도범 B씨는 20일 새벽 3시에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C씨의 차량에서 현금과 지갑 등

2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피해를 당한 C씨는 이 사실을 경찰과 가족에게 알렸고, 딸 역시 남자친구인 A씨에게 절도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요즘 도둑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장물을 판매하기도 하니 한 번 찾아보자”며 중고거래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고, 훔친 지갑을 판매중인 B씨를 발견한 것이다. A씨는 B씨와 거래 약속일을 잡은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절도범과 만나기로 했으니 나와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검거 당시 C씨의 또 다른 명품 파우치(루이비통)를 들고 있었지만,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이 지갑(판매하려는 지갑)은 누나 것이고 이 파우치는 내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필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훙친 현금 등은 대부분 밥값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북부경찰, 96억원 카드 결제 사기 2명 구속

지난해 수습익원대 카드 결제 사기를 벌인 혐의로 고소당한 공범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공범 1명은 도주 후 잠적해 기소 중지됐다. 광주북부경찰은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 사기를 한 혐의(사기 등)로 30대 공범 2명을 구속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광주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총 96억원의 카드 결제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공범 3명은 ‘법인세 등으

로 1000만원을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원금에 2% 정도의 수수료를 붙여 돌려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카드사에서 미지급된 금액(26억여원)을 제외한 7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소인들이 아직까지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합치면 600여명의 피해자와 260억원 피해금액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가정 이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좌관 급여 착복’ 전 광주시의원, 제명 불복 가처분 기각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제명된 나현(비례대표) 전 광주시의원이 제명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나 전 의원이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가 대체로 소명되

고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재판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나 의원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부당해야 할 보좌관 급여 880만원(월 80만원)을 보좌관에게 시의회에 대납토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명 처분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90억 사기 행각...세무법인 사무장 출신 ‘간 큰 40대 여성’

○...고수의 보장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무려 90억원을 받아 가로챈 등 사기행각을 벌인 세무법인 사무장 출신의 간 큰 40대 여성이 철장행. ○...2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씨(여·42)는 2017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지인 등 10여명에게 “법인들이 연말에 자본금을 맞춰야 한다. 법인에 돈을 빌려주

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90억원을 받아낸 뒤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전직 세무법인 사무장 출신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지인들에게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피해자들의 고소로 조사가 진행되자 50억원 상당은 지인들에게 돌려줬다”고 설명.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SM 그룹에서 역량있는 분을 모십니다.

- 모집부분 및 응시자격

모집부분	인원	담당 업무 및 자격요건	근무지
임원 (본사)	1	- 건설사업 전반을 리드하면서 사업 수주 및 인허가 업무추진이 가능하신 분 (주택 건축, 공공사업 유경력자) - 건설업 리스크관리와 사업분석 및 원가관리가 가능하신 분 - 2,3군 건설회사 본부장 출신 우대	광주

-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 인성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3차 : 레퍼런스체크 (대상자 개별통보 후 진행)
- 4차 : 대표이사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통지)

- 제출서류

- 1) 입사지원서(개별양식)
※ 최종 직위 및 연봉 기재
- 2) 자기소개서(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

- 접수기간 및 방법

- 1) 서류접수 : 2020년 1월 31일 ~ 2월 7일(금요일) 도착분에 한함
- 2)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sam26486@hanmail.net)
- 3)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21(궁동) 3층 (주)삼라
- 4) 문의처 : ☎. 062-233-7733 / 기획총괄부

- 기타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습니다.

SM | 추 삼 라